

Press Release

Kukje Gallery

Gimhongsok_Blue Hours

김홍석 (서울 생, 1964-)

2014. 4. 10 - 5. 11

국제갤러리 2관 (K2)

기자간담회: 2014. 4.10 (오전 10시 30분), 국제갤러리2관-작가참석예정

www.kukjegallery.com



국제갤러리는 김홍석의 개인전 <Blue Hours>를 개최한다. 지난 2008년 이후 두 번째 국제갤러리 개인전을 맞아 작가는 그만의 고유한 걸레질 회화 작품 및 다양한 방식의 노동집약적인 드로잉들, 예를 들면 벽면에 펜을 이용한 드로잉이나 붓질을 채움으로써 일정 시간 진행된 노동의 결과를 드러내는 다채로운 방식의 드로잉들을 선보인다.

참여 작품들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일용직 노동자 및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의해 제작된 다양한 형태와 기법의 연작들로, 2011년부터 시작된 <사람 객관적(People Objective)> 프로젝트와 맥락을 같이 한다. 참고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람 객관적(People Objective)> 프로젝트로는 아트선재센터에서 소개된 다섯 명의 배우들이 관객들에게 본인들이 전달받은 미완의 작품의 설명을 전달하는 퍼포먼스 및 지난 해 플라토 미술관에서 선보인, 비평가 3인이 참여한 강연과 저술활동으로 이루어진 퍼포먼스가 있다. 이 작품 제목이 지칭하는 '사람'이라는 대상은 배우, 도슨트, 비평가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들로 대표되는 인물들로서, 어떤 이들에게는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유형의 사람들일지 모르나 작가 김홍석에게는 일상이자 삶의 일부와도 같은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국제갤러리 개인전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사람 객관적(People Objective)> 프로젝트는 <시간당 예술(Hourly Art)>란 제목으로 노동집약적인 작품 제작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작품결과의 미학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각기 다른 형태와 접근의 작품들은 작가의 단순한 지시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단순한 노동으로부터 귀결된 것들이다. 이 작품에서 관객은 그 일련의 과정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관계의 지점, 곧 작가의 의도와 이를 지시 받는 노동자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주목하게 한다.

KUKJE GALLERY

54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110-200 T+82 2 735 8449 F+82 2 733 4879 kukje@kukjegallery.com www.kukjegaller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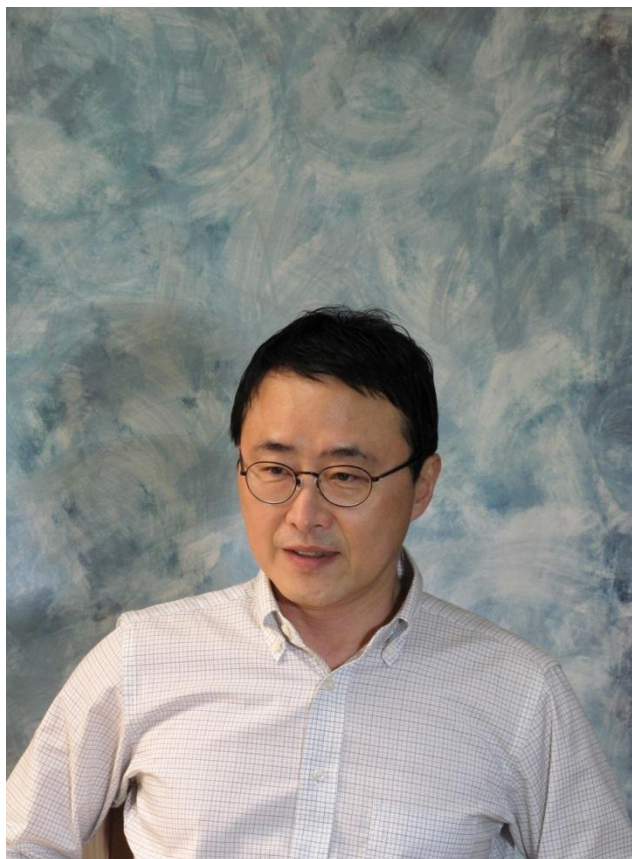
그 예로 전시 주요 참여작품 중 하나인 걸레질 회화연작 <MOP-131014걸레질-131014> (위의 이미지 참고)은 작가가 색칠한 캔버스 표면을 일정시간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가 손 걸레질을 통해 닦아낸 행위의 결과이다. 각기 다른 색의 캔버스를 닦아내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1시간에서 경우에 따라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하며, 걸레질 과정에서 만족할 만한 이미지가 생성되는 순간 작가의 요청에 의해 걸레질은 멈추게 된다. 이때 작가와 일용직 노동자 사이에 처음으로 미술을 주제로 한 '관계'가 발생하는데, 그들이 작가에게 보여준 반응은 단순 노동의 결과가 어떤 근거로 인해 미술작품으로 전환되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육체적 행위에 의해 완성된 그림이 어떤 이유로 작가의 지적 소유물이 되는가에 대한 불편한 의문들이다. 이러한 불편한 상황은 작가의 미적 표현을 대리한 노동자들에게 이 노동으로 인해 그 동안 자신들이 품어 온 인식의 질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행위에도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난 윤리적 불편함과 연관된다.

그 외에도 이번 전시에서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구겨진 종이에 대한 입체작품 <DIN A>와 도면처럼 보이는 드로잉 작품 <불가능한 완성을 위한 정교한 도면>을 선보인다. 이 작품들은 그의 또 다른 프로젝트 <완전한 미완성>에 대한 것으로, 표준화된 규칙을 통해 완전함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회적 합의가 미래의 진보를 보장하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동의 약속은 문자, 도면 등을 통해 우리의 환경에 질서를 부여하지만, 문자와 도면으로 형상화할 수 없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도태되거나 배제된다. 작가는 문자화할 수 없거나 도면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형태를 그의 고유한 방법으로 복원함으로써 원본으로 돌아가려는 속성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욕망에 대척되는 작품으로 완성한다. 작가는 도면 없이 만들어진 기계와 건축물, 반대로 도면화할 수 없는 입체작품과 설치물들이 그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거나 미적으로 아름답다고 제안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두 가지의 프로젝트, <Hourly Art>와 <Completed Imperfectness>에 대한 작가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나의 의도는 미술인가? 그 결과물은 미술인가? 미술 전문가들에 의해 발명된 미술의 관점에서 이것은 미술이다. 그러나 일반적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나의 이러한 지시는 '철학'에 근거한 것이고, '생산'과 그 결과물에 대한 '유통'과 '소비'는 '경제학'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나와 일용직 노동자와의 관계는 '사회학'에 가깝다. 그런데 나는 이것이 미술이 되기에 충분한 이유를 알고 있다. 이것이 미술이어야만 대접을 받는 그 이유도 파악하고 있다. 미술이 아니라면 이것은 정말 부질없는 짓거리가 되기 때문에 미술이어야 한다. 나는 이것이 '지적 소비'와 '물질적 소비'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다. 전문 미술가가 발명한 미술을 아는 이들은 나의 작품을 소비할 것이고, 이것이 캔버스와 평범한 사물로 이루어진 조각으로 인식하는 이들도 소비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분명 미술이 아닌데 미술로 소비될 것이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미술이다.

김홍석은 현대사회가 지속적으로 도시화됨에 따라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현대미술의 현상, 그 중에서도 작품 제작과 연관된 비판적 관점을 가시화 한다. 이번 김홍석의 개인전 <Blue Hours>는 노동을 바탕으로 일반화된 현대미술의 관습적인 구조, 예를 들면 작가를 중심으로 한 작품의 생산구조 및 이를 유통하는 소비구조, 나아가 그 결과물을 작품으로 향유하는 관람자의 인식 등에 관한 김홍석 특유의 날카로운 예술적 해석을 접하게 될 것이다.



작가: 김홍석

<사진제공: 국제갤러리>

김홍석은 1964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서울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이후 독일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에서 수학하였다. 작가는 기존의 미술에 대한 관습적이고 제한된 선입견에 대해 도전하고, 동시대의 미술이 의심 없이 미술의 영역으로 규정되고 인식되는 사회적 합의방식에 대해 비평적 질문을 제기해왔다. 특히 기존의 미술 구조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창작과 전시, 그리고 소통과 작품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순환을 다채로운 관점으로, 예를 들면 철학적, 경제학적, 그리고 사회학적인 입장을 통해 해석한다.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비판의 견지에서 일반화된 미술의 영역 내 행해지는 현상들에 대해 비평적으로 재현하고 합의된 균형에 균열을 주는 탐구를 지속하고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플라토 삼성미술관, 아트선재센터, 티나킴 갤러리, 레드캣 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제50회, 51회 베니스 비엔날레, 제10회 이스탄불 비엔날레, 제10회 리용 비엔날레, 제4회, 6회, 9회 광주비엔날레, <Brave New Worlds>(워커아트센터, 2007), <All about Laughter>(모리 미술관, 2007), <The Fifth Floor>(테이트 리버풀, 2008), <Laughing in a Foreign Languages>(헤이워드 갤러리, 2008), <Your Bright Future>(로스엔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2009)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4년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 외 주요 소장처는 프랑스의 르 콩소르시움, 텍사스의 휴스턴 미술관, 일본의 구마모토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과 시립미술관 등 다수의 주요기관들이 있다.

Contact: PR Director Zoe Chun (82-2-3210-9885, 82-10-9601-5411 / E-mail. zoe@kukjegallery.com)

KUKJE GALLERY

54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110-200 T+82 2 735 8449 F+82 2 733 4879 kukje@kukjegallery.com www.kukjegallery.com

-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들은 함께 첨부된 작품 및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매체의 특성상 별도의 이미지 편집이 요구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imhongsok

MOP-131208 걸레질-131208

2013

urethane paint on canvas

120 x 120 cm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KUKJE GALLERY**

54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110-200 T+82 2 735 8449 F+82 2 733 4879 kukje@kukjegallery.com www.kukjegallery.com

Gimhongsok

Untitled (big black wall)

2014

paint on wall

dimensions variable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Gimhongsok

Untitled (112 hours)

2013

steel storage cabinet

60 x 51 x 184(H) cm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KUKJE GALLERY**

54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110-200 T+82 2 735 8449 F+82 2 733 4879 kukje@kukjegallery.com www.kukjegallery.com

Gimhongsok

MOP-131011 걸레질-131011

2013

urethane paint on wood

121 x 121 cm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Gimhongsok

15 breaths

2013

bronze

32 x 32 x (H)285 cm

base: 50 x 50 x (H)6 cm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